

IV. IMF 시대를 넘는 지혜

1. 지식은 최고의 경쟁력 기반

□ 지식이란 무엇인가

IMF 관리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경제 전반의 구조 조정이 한창이다. 그러나 부실 기업들의 퇴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구조 조정은 국내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 불과하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실제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 경제를 '지식 기반 경제'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지식을 최고의 경쟁력 제고 요인으로 활용하는 경제를 말한다.

지식이란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일하는 방법을 개선·개발·혁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지식은 특정 사실에 대한 전문 지식(know what), 자연 법칙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know why),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know how), 누가 무엇을 아는가에 대한 인식(know who)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창출된다. 이상의 정의는 광의의 '기술 혁신'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서의 기술이란 단순한 물리적 생산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 기법의 개선이나 발견과 발명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지식 기반 경제'란 '기술 혁신 경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기술 혁신은 인간의 창조 능력에 바탕을 두는 것이므로, 이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 중시 경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 왜 지식인가

지식은 이전부터 인류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더욱이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이라는 지식의 획기적인 발전에 의해 이룩되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에서 새삼스레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난 30여년간 고을 성장을 이룩한 국내 경제가 지금 '호두까기 집계(nutcracker)' 속에 끼여 있는 것이다. 비용 우위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구해 온 한국 경제는 지금 위로는 선진국에 눌리고 아래로는 후발 개도국에 밀리고 있다. 선진국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도 없고 경쟁국들보다 값도 싸지 않아 한국 경제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이제 과거와는 다른 방식 즉, 새로운 지식과 기술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지금의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

는 것이다. 두번째는 세계적으로 지식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활용 측면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의해 다양한 지식의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이의 신속한 분배와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지식이 설새없이 생성·보급되고 있다. 이를 습득하지 못하면 세계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 경제는 이처럼 발전 단계상으로나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적응 차원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중의 하나는 인적 자본이다. 60년대 경제 개발 초기에 우리 사회에 축적되어 있던 우수한 인적 자원은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70년대말부터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개발 투자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더욱이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지식 창조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지식 습득을 출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권력 지향형 지식 풍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교적 전통과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과정은 우수한 인력이 인문 사회 계통의 관료 계층에 몰리도록 만들었다. 또한 고학력에 대한 사회적 우대는 입시 위주의 암기 교육 풍토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지적 풍토가 지식의 단순 습득에만 치중하고 지식의 응용과 창조적 활용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한 것이다. 지식의 가치를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지식 창조의 걸림돌이다. 정보와 지식을 공공재로만 인식하고 이의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 인색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거듭 나기 위해서는 이제 '창조 지향형 지식 풍토'로 우리 사회가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 학교는 더 이상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전수 기관'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조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의 전제는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과 입시 제도가 변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 규제가 혁파되어야 한다. 관리 우위 사회의 형성은 바로 정부 규제에서 비롯되는 까닭이다. 셋째는 지식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이를 전담하는 단일 기구가 만들어져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유 병 규 bkyyoo@hri.co.kr, 28724~4060)